



開 會 辭

國際病院聯盟地域會議에서

醫療倫理의 基本精神을

病院人の 基本哲學으로...

大韓病院協會 會長 趙 雲 海

國務에 奔忙하심에도 不拘하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尊敬하는 陳懿鍾 國務總理님, 金正禮 保健社會部長官님, 李贊赫 國會保社分科委員長님과 國會議員님!

그리고 멀리 런던 本部로부터 參席하여 주신 國際病院聯盟의 “크론보그” 會長님과 “하디” 事務總長님, 世界 各國의 病院協會 會長님과 代表內外 貴賓!

그리고 親愛하는 全國病院의 病院長님과 任職員 여러분!

오늘 國際病院聯盟 地域會議가 우리나라에서 開催되는 歷史的인 開會式에 즈음하여 本人은 大韓病院協會를 代表해서 이자리에 枉臨해 주신 여러분을 衷心으로 歡迎해 마지 않으면서 今般 本會議을 이곳 서울에서 開催하는 榮光을 갖게 된 것을 無限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陳懿鍾 國務總理님께서는 先進祖國建設을 爲하여 不撤晝夜로 盡力하시며 바쁘신 中에도 몸소 枉臨하시어 이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고, 멀리 世界保健機構의 韓相泰 博士님께서 基調演說을 맡아 주시게 된 것을 저희 會員病院一同은 더 없는 榮光으로 생각하면서 깊이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今般 本 地域會議에서 座長과 演者를 맡아 受苦해 주실 國內外 學界의 先輩님과 同僚 그리고 그동안 本 行事務準備에 모든 協助을 아끼지 않으시고 積極 支援해 주신 保健社會部當局과 關係部處 및 機關 여러분께도 深甚한 謝意를 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國際病院聯盟은 會員國 相互間의 醫療情報交換과 協力增進을 目的으로 1929년에 設立된 以來 半世紀를 넘기는 동안 꾸준히 病院의 水準을 向上시키고 患者에게 最善의 診療를 提供하는데 있어서 恒常 先導的 役割을 遂行해 왔다는 事實을 本人은 잘 알고 있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病院界는 世界的으로 急速한 醫科學의 發達과 더불어 不可避하게 提起되고 있는 醫療原価의 上昇과 醫療資源의 制限等으로 因해 派生되는 諸般問題들을 우리 스스로 克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2,000年代를 指向하는 現代社會가 病院機能의 多樣化를 더 한층 要求하게 되어 病院의 任務는 漸次 莫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病院의 第一義의 存在價值는 患者診療에 있습니다.

醫聖 “히포크라테스”의 宣誓가 數千年來의 眞理로 崇尚되고 있는 理由는 바로 “醫療란 患者를 爲해서 存在한다”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社會의 變遷에 따라 그 時代의 價值觀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人間生命을 다루는 醫療倫理의 基本精神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眞理는 國家와 民族 그리고 政治의 理念을 超越하여 永久不變한 全人類의 理想이며 우리 病院人의 基本哲學이 되어야 한다고 本人은 確信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서울會議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病院界가 當面하고 있는 여러가지 共同課題에 對한 解決方案이 마련되어 모든 會員國의 發展에 새로운 轉機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眞摯한 討論과 建設的인 建議가 함께 있으시기를 期待하면서 産業視察과 病院研修까지 모든 行事務가 成功裡에 終了되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全國會員病院의 積極的인 參與와 協調에 感謝드리며 특히 外國代表여러분이 韓國에 머무시는 동안 보다 보람있고 즐거운 時間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國際病院聯盟의 永遠한 前進를 다짐합니다. 感謝합니다.